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교과서전문도서관 발전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Specialized Textbook Libraries for the Benefit of Research and Education

노 영 희 (Younghee Noh)**

최 원 태 (Won-Tae Choi)***

윤 다 영 (Dayoung Yun)****

초 록

교과서전문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과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서 개발 출판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전문도서관의 현실을 보면, 국가지원운영 예산 부족, 공공기반시설로서 기반 취약, 교과서 관련자료 수집의 어려움, 도서관 간 연계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사례분석, 그리고 전문가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교과서전문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전문도서관 구축 및 운영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크게 교과서전문도서관 조직 및 운영,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자원의 수집 및 목록작성 방안, 그리고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화전략 및 특화콘텐츠의 구축 등으로 대분하여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specialized textbook library provides resources for textbook publishers and textbook development professionals as well as others in related fields who are committed to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The textbook library also supports research and education among the faculty and students. But, when examining the reality of the textbook specialized library, analysis concludes that it faces various problems such as state-supported operating budget shortfalls, weakness of public infrastructure, difficulty in collection of textbook-related data, and lack of inter-linked library systems. Thus, this study determin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textbook specialized library through the process of literature analysis, case studies, and reflection of expert opinions. In this study, a long-term policy direction of the building and operating of textbook specialized libraries has been proposed as follows: organizing and operating a textbook specialized library, collecting and creating a list of textbook-related information resources, creating information strategy, and constructing specialized content for the textbook specialized library.

키워드: 교과서전문도서관, 교과관련 정보자원, 정보화전략, 중장기발전방향

Textbook Specialized Library, Textbook Related Information Resources, Information Strategy,
Long-Term Policy Direction

* 본 연구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tchoi@kku.ac.kr) (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dayoung304@kku.ac.kr)

논문접수일자 : 2015년 5월 12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6월 6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6월 1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25-51,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2.02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문도서관은 특정 주제분야의 정보자원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그 주제분야의 연구 및 교육, 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모든 전문도서관의 주제분야를 구분하여 각각의 도서관이 전문성과 독창성, 그리고 특정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교과과정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계 및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과서전문도서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에는 교과서 및 교과서 관련 자료만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전문도서관들이 있으나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관련 자료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서 관련 정보자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도서관으로는 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정보관과 한국문화교류센터의 국제교과서도서관이 있다. 한국 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교과서 관련 자료를 다양한 서비스 중의 하나로 제공하고 있으나 주요 서비스는 아니다.

이로 인해 주요 이용자에 해당하는 교사, 학생, 교과서를 연구하는 연구자, 출판사 등은 원하는 교과서 관련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검색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 관련 자료를 전문적이고 총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서전문도서관을 확대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정보관은 교육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교과서를 수집 및 보존하는 교과서전문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교과서정보관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과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서 개발 출판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관련 지식의 공유 활용과 보존을 위해 교과서정보관은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지원운영 예산 부족, 공공기반시설로서 기반 취약, 교과서 관련자료 수집의 어려움, 도서관 간 연계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정보관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리기능의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발행된 모든 교과서들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수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일례로 1998년에 수행된 한국교과서 목록수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교과서목록정보를 확보하였으나 현재는 그 당시 목록자료에 수록되었던 자료들을 해당기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거나 폐기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목록을 재조사하여 정리하는 것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연계하여 목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교과서전문도서관으로서 교과서정보관의 현과제와 미래과제를 밝혀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정보관 구축·운영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정보관 구축·운영의 발전방향으로 교과서정보관의 조직 운영 정책, 교과서정보관 기능의 확대 방안, 교과서 자료의 조사 및 확충 방안,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 교과서정보관의 교과서 목록 조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보화 전략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콘텐츠,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타 기관 연계 방식에 대해 5개년 계획으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기관 간 협약 업무도 제안하고자 하였다. 셋째, 특화 콘텐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일반인들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남북의 교과서 비교나 전시효과를 낼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을 검토하였으며,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의 교과서 전문 정보사이트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단기 추진계획, 장기 추진과제, 지속 추진과제 등의 형식으로 업무 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정보관의 활성화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관리기능의 통합 및 효율적 운영방안으로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

는데, 1단계 연구에서는 현재 교과서정보관의 이용자들인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서, 출판관계자, 학부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노영희, 최원태, 윤다영 2014). 그리고 본 2단계 연구에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외 교과서전문도서관 구축·운영 관련 선행연구와 구축·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과서전문도서관 및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관련 각종 자료와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교과서전문도서관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평가조사단(자문위원단) 운영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의 문제점 진단을 위하여 평가조사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연구진이 제시한 교과서정보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자문회의는 연구방향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전문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전문도서관에 대한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의 관심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선행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과학기술을 포함한 전문도서관에 대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육학 쪽에서 수행된 교과서 정보 유통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즉, 교과서 관련 법적 측면의 연구, 교과서관련 정책현안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교과서 대역제 및 교과용도서발행시스템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1단계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2.1 교과서 관련 법적 측면의 연구

교과서 관련 저작권법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제6항을 기반으로 입법부가 교육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의 조직을 담당해야 한다고,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역시 중요한 교육제도의 하나이므로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받고 있다(김덕근 외 2012).

교과서 발행제도 관련 연구로 홍후조 등(2007)은 교과서 발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세부적인 규정 차원에서 분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검 인정 교과서제도 개선방안, 인정 교과서제도 개선방안, 검정수수료 관련 규정의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균(2012)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인정제 확대 정책이 현행 심의규정 때문에 그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교과용도서 발행제도에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다(조난심 외 2004; 김재춘 2009; 유학영 외 2009; 심재호 2010).

다음으로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상당히 있으며, 김송득(1996)은 교과서 법률제도의 구조와 논리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법 및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 등에 관한 규정」, 행정부의 입법절차(시행령·시행규칙), 교과서 관련 법령의 체계, 그리고 교과서 법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를 천명한 1992년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가 법률주의의 실현 정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으며(박창언 2003, 2004; 김유환 2005), 구체적으로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에 관여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 교과용도서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행정입법 체제가 헌법에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교과서 인정도서 확대정책과 그 내용 및 전망에 관한 연구로 인정도서 확대정책에 따른 해결 과제(이화성 2009), 교과서 인정제도의 발전과제(김정호 2009), 우리나라 인정도서 개발현황(김병규 2009), 인정도서 업무의 절차와 요령(윤광원 2009) 등이 있다.

그 외 교과서제도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통제 범위에 관한 연구(황준성 2006), 국정교과서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박창언 2003), 교과용도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 분석 연구(김유환 2005), 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그 영

향에 관한 연구(김만곤 2009) 등이 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고 이로 인해 법률적 쟁점과 논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최진원(2011)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도입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교과서와 교과용도서의 개념, 게재와 전송의 구분, 저작권접권의 보호, 인터넷자원의 충분한 활용, 현 보상금 규정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그 외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로 디지털교과서 현장적용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방안 연구(KERIS 2007a),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방안 연구(서울시교육청 2007b), 교사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교과서 기대효과 연구(서울시교육청 2007a),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학습자 측면의 효과성 연구(서울시교육청 2007c), 장애인용 전자교과서 개발 방향 연구(KERIS 2007b),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생과 교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KERIS 2009),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KERIS 2008), 디지털교과서 검인정체계 구축 연구(교육과학기술부 2008),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사용자 평가 및 UI 모델 개발 연구(교육과학기술부 2009) 등이 있다.

2.2 교과서관련 정책 현안에 관련된 연구

교과서 정책 현안과 관련된 연구로 조난심 등(2010)은 교과서와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들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과서 수정·감수·선정 등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제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첫째, 교과서 수정정책의 기본 입장 재정립, 둘째, 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여 교과서 수정에 대한 이행력 제고, 셋째, 교과서 수정이 지속적인 교과서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정기 검정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 외 교과서 정책관련 연구로는 인정 도서로 전환된 전문 교과도서 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병욱 2009), 인정도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문홍근 2010), 검정도서 수정·보안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김만곤 2006),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에 관한 논의(이승구 2006),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박도순 외 2001) 등이 있다.

2.3 교과서 대여제 및 교과용도서발행시스템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

자율학교 운영, 교과전용 교실제 및 교과집중 이수제 도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장 적응성이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외형 체제도 개선된 선진형 교과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 및 외형 체제가 개선되면 그에 따라 교과서의 가격이 상승하여 비용 부담이 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교과서 대여제가 논의되고 있다(김상재 2009). 교과서 대여제 도입에 관한 연구(김재춘 2012)에서는 우리나라에 교과서 대여제의 도입가능성 내지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교과서 대여제의 의미와 장단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교과서 대여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교과서 대여제 도입 여부에 대한 교육관계자의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대여제의 도입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교과서 대여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고, 교과서 대여제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용도서 발행시스템의 표준화에 관련된 연구로, 금창연, 부길만, 채성혜(2007)는 교과서의 기획, 편집, 디자인, 제판, 인쇄, 공급, 유통 등 부문별 발행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교과용도서 발행 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용도서 발행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4 교과서정보관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교과서정보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이나 국내외 교과서 관련 자료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과서정보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2단계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설문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과서 관련 포털사이트 이용현황 및 교과서 전문도서관 개선방향, 그리고 교과서정보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노영희, 최원태, 윤다영 2014). 그 결과 첫째, 교과서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 교과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및 기관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들은 다양한 교과 보조 자료 및 교과관련 학습자료 제공서비스, 국내외 모든 교과관련 정보의 통합 검색서비스, 콘텐츠 활용이 용이한 원문제공서비스, 관련 연구논문, 학술자료, 통계 등 전문정보제공서비스 등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셋째, 교과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자료실, 학교도서관, 출판사, 그리고 교과서 관련 해외 정보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3. 국내외 교과서관련 도서관 사례

전문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주제분야별로 전문도서관들이 발굴되고 분석되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관련 도서관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교과서전문도서관으로 교과서정보관이 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과관련 자료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 중 주로 교과서관련 정보자료만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교과서전문도서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3.1 국제교과서도서관

한국문화교류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CEFI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교과서를 폭넓게 소장하고 있는 국제교과서도서관이다. 교과서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한국바로알리기사

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에게 외국 교과서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3,500여 권의 장서로 개관하여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9,200여 권의 외국교과서를 비롯해, 교과서 관련 연구보고서와 교육정책자료 등을 포함한 14,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교과서도서관은 교과서전문도서관이지만 열람·대출·복사 등의 단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열람 및 대출서비스의 경우 교과서는 관내 열람만이, 단행본과 연구보고서는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및 직원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3.2 교과서정보관

교과서정보관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1991년 개관한 교과서전문도서관이다. 교과서정보관은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과서 관련 연구자 및 교과서 국제비교 연구자, 교육부 및 관련 연구기관과 교과용 도서의 기획·집필·편집·제작 담당자 등에게 국내·외 교과용도서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국내·외의 교과서와 고(古) 교과서 및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전시하고, 교과서 및 관련 자료의 DB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과서정보관 디지털도서관에서는 교과서로 보는 시대별 교육, 국외교과서 나라별 검색, 국내교과서 교과목별 검색, 교과서 원문 열람, 견학 및 수업지원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3.3 Japan TextBook Research Center Library

이 도서관은 일본 교과서연구센터 내에 위치

하고 있으며,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와 다른 나라의 교과서들을 수집·소장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연구센터 도서관은 교과서승인시스템에서 제시하고 있는 1949년 이후에 간행된 교과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와 교육자, 교과서 편집 등의 교과서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교과서 관련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업진행에 필요한 참고도서도 제공하고 있다.

3.4 Open Textbook Library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자료를 사용·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교과서 교재를 약 10개의 주제분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쇄할 수 있다. 가격이 비싸고 도서의 부피가 커서 휴대가 어려운 대학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의 사정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학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5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미국에 위치한 연구도서관센터(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CRL)는 1949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대학연구도서관 국제컨소시엄이다. 이 기관은 인문학·과학·사회과학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나 학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잡지, 아카이브 및 기타 자료들을 디지털 자료로 보존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아프리카·

중동·슬라브·동유럽·동남아시아·남아시아·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주요지역의 자원들도 관리한다. CRL이 수집한 자원은 다양한 지역의 연구 컬렉션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의 주요 대학 내 사서나 전문가 및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도서관센터가 수집하는 자원에는 교과서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초등교과서의 인쇄물, 비즈니스 및 무역 분야의 고등학교 이후의 비학위과정 학교 교재, 외국어문법 교재 등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교과서 및 관련 자료들을 수집·소장하고 있다. 교과서 관련 장서는 총 70,000여 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으며 교과서 관련 자료의 진열공간이 약 8,000피트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CRL은 교과서를 각 과목마다 유형에 따라 저자, 시리즈 제목 또는 발행인을 알파벳순으로 분류해 놓았다. 또한 교과서 외에도 교사용 지침서, 보조자료, 교사업무매뉴얼, 실험실매뉴얼 등 교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3.6 분석결과 및 시사점

위의 교과서 관련 도서관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관련 참고자료의 수집 및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교과서연구센터에서는 교과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와 교육자, 교과서 편집분야 종사자에게 교과서 관련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편집하는데 필요한 참고도서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전문도서관에서도 교과서 편집 종사자 및 연구자를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교과서 관련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과 관련하여 교과서전문도서관에서 갖추어야 할 학술D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해당 웹 참고정보원의 구입과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주제별 교과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이 요구된다. Open Textbook Library의 경우 주제별로 교과서정보 DB를 구축하여 브라우징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자료에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전문도서관 역시 주제별 교과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교과서 관련 정보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과서 관련 연구출판물의 통합수집 및 제공이 요구된다. 국내·외 교육학 및 교육관련 연구자나 현장 교사들을 비롯하여 교과서 관련 연구자들이 출판한 교과서 관련 모든 연구출판물들을 수집해서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한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연구결과물,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행한 연구결과물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정보제공기관의 일원화 및 특성화가 요구된다. 교과서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내에는 한국문화교류센터의 국제교과서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정보관 등이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교과서 정보자료가 중복되어 수집·구축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교과서정보제공기관을 일원화하고 각각의 기관 자료를 특성화시키면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되어야 한다. 즉 교과서정보관은 교과서전문도서

관으로서 교과서 관련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일원화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국제교과서도서관은 국제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각각 특성화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 있는 교과서 관련 전문도서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고 각각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관 소장 정보자료의 협력까지 이루어진다면 교과서전문도서관이 진정한 교과서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표적인 국외의 교과서전문도서관으로는 일본의 Japan TextBook Research Center Library와 미국의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등이 있다.

4. 교과서전문도서관의 구축 및 운영방향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교과서 관련 전문도서관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교과서전문도서관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교과서전문도서관 구축 및 운영의 중장기 정책방향은 크게 교과서전문도서관 조직 및 운영,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자원의 수집 및 목록작성 방안, 그리고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화전략 및 특화콘텐츠의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전문도서관의 대표로서 교과서

정보관을 대상으로 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안된 교과서전문도서관의 정책방향은 교과서전문도서관 운영책임자, 교과서정책 연구분야의 전문가, 시스템전문가, 문헌정보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발전방향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평가 함께 이미지를 통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전문가의 의견은 본 장의 제안내용에 모두 반영되었다.

4.1 교과서정보관 조직 및 운영

4.1.1 교과서정보관 현황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육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등 교과서와 관련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1년 교과서정보관을 설립하였다.

도서관내의 자료검색용 컴퓨터에서 자료의 위치를 찾아 열람실 내에서 보고자 하는 자료를 데스크에서 바코드 리더기로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외대출은 할 수 없다. 자료의 복사는 부분 복사만 할 수 있으며 전체 복사는 불가하고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또한 불가하다. 교과서 원문DB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협정을 체결한 도서관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 또는 교과서 관련 연구 자료의 기증을 받아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중점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개화기 교과서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의 자료와 다양한

회귀 교육 자료이다.

4.1.2 교과서전문도서관 업무조직 확대 개편 필요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정보관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 및 역할확대를 통해 교과서 관련 연구자, 학생, 교사, 출판 관계자 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조직의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교과서정보관은 자료관리부, 참고서비스부, 기획연수부, 교과서박물관, 교과서연구소를 하위부서로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은 국내의 사례분석 및 현 교과서정보관의 기존 발전방안,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설립계획 등을 참조한 것이다.

자료관리부는 자료수집과와 자료운영과로 구성하며, 각종 교과서 및 교육정보자료를 수집하여 DB로 구축하며, 수집된 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한다. 참고서비스부는 교과서정보관에 구축된 온·오프라인 정보들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부서로 자료의 열람, 대출, 교과서 대여, 디지털교과서서비스를 한다. 또한 연구자가 교과서와 연관된 연구진행 시 이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하며 정보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다. 기획연수부는 총무과, 도서관운영협력과, 사서능력발전과, 정보화담당과로 구성하며, 교과서정보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이다. 총무과에서는 정보관의 예산, 민원, 보안, 급여, 인사에 대한 업무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을 다룬다. 도서관운영협력과는 교과서정보관의 세부실행계획을 다루며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활동한다. 기관의 홍보, 전시 및 문화업무, 간

행물의 발간 등을 다루는 대외협력부서라 할 수 있다. 교과서박물관은 전시와 유물의 보존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부서이며, 학예연구실, 관리과, 외부협력과로 구성한다. 교과서연구소는 교과서와 관련 정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4.1.3 교과서정보관 운영관련 사업

교과서정보관에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다음의 10가지로 제안하였으며, 장서개발, 정보원 확충계획 수립, 정보봉사, 보존, 기획 및 협력, 정보화담당, 교과서 및 교과 관련 정보원 통합센터 구축, 교과서데이터 DB화, 특화콘텐츠 구축, 협력활동 등이다.

먼저, 장서개발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교과서정보관에서는 소장장서에 관하여 그 현황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교과서정보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교과용도서와 일반자료로 구분된다. 국내·외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자료에는 참고도서,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교과서정보관은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화된 교과서와 관련된 각종 매체의 정보원을 수집하고 효율적인 장서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교과서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체계를 기획하고 구체적인 수집방안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교과서 및 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되, 교과서 단행본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이나 현 교과 과정을 반영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해외의 교과서관련 정보자료 생성기관 및 정보자료실들에 대한 리스트를 구축 및 확보하고 협력을 통해 정보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한 뒤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관련 외국기관과의 국제교류를 통한 자료 수집 및 교환, 자료기증 약정제 시행 등 자료 기증운동 활성화 계획, 저작권신탁관리제도를 활용한 자료 수집 및 유통체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원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현 교과서정보관의 자료 전체를 이관받아오도록 함으로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의 주춧돌을 마련하도록 한다. 확보된 교과서 관련 정보자료 생성기관 및 정보자료실들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교과서 관련 세미나, 행사, 전시 등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교과서 관련 자료실의 서고·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장서의 이전이 필요한 기관이 있을 경우 관련 장서들을 이관받아 소장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의 교과서 관련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수집하여 해외교과서관련 연구자 및 교과서 정책 수립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보봉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과서정보관은 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일반 정보봉사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되 교과서분야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정보봉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교과서분야 전문정보서비스 내용은 교과서분야 전문참고정보서비스,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 디지털 참고정보서비스, 교과서분야로 특성화된 연구지원 서비스, 국내외 외국인을 위한 전문화된 참고서비스, 정보관 및 도서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지원, 복합전시공간을 통한 정보제공서비스, 교과서관련 자료의 전시, 홍보 등을 통한 주제전문 지식 정보봉사 제공 등이 될 수 있다.

넷째, 보존업무를 해야 한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은 보존가치가 있는 교과서 관련 자료를 평가하고 이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과서 보존서비스의 내용은 보존가치가 있는 교과서관련 자료 및 작품의 평가·보존 업무, 교과서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이관·기증받은 자료 중 보존성이 높은 자료의 보존 업무, 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기타 교과서관련 소장자료 영구보존 관련 업무, 제본 및 보수에 관한 업무, 디지털자료의 관리, 보존, 이용관련 업무 등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기획·협력업무를 해야 한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의 기획 및 협력관련 업무는 교과서전문도서관 운영 및 계획,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각종 외부기관 지원 업무, 교과서관련 전문도서관 발전 전략을 모색, 교과서관련 국내외 전문도서관과의 협력 업무, 교과서관련 국내외 전문시설과의 협력 업무, 교과서분야 주제전문사서 양성교육 등이다.

여섯째, 정보화담당업무를 해야 한다. 교과서전문도서관에서는 교과서분야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등 정보화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화담당업무는 교과서분야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총괄 및 지원하는 업무, 교과서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과서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수행, 교과서분야 도서관 정보화 대상으로 교육지원과 소장자료의 정보화 지원, 교과서분야관련 도서관 정보화·표준화 기술지원 업무, 즉 교과서분야 분류체계 개발 및 목록작성 표준화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교과서 및 교과 관련 정보원 통합센

터를 구축해야 한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은 교육·학습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를 주제로 특화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의 교과서 및 교과 관련 정보원 통합센터 구축은 우리나라 교육자료의 유산인 교과서에 대한 보존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교과서 자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하였다. 분산된 교과서 관련 전문도서관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과서라는 특수한 주제에 부합하는 포털사이트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교과서데이터의 DB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자료 원문정보 DB구축이 요구된다. 학술적·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원문정보 DB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정보 DB구축도 요구된다. 교과서정보관에서 소장중인 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게 하고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장자료에 대한 목차정보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정보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장서를 대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종합목록 및 원문 DB구축이 요구된다. 모든 국민이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보취약계층 이용자도 다양한 형식의 종합목록과 원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점자·수화로 제작된 교과서, 특수교과서 등도 장서 범위에 포함해 수집하고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장서의 보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홉째, 특화콘텐츠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검색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 및 교육과 관련된 정보원 중 분산된 것을 통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가공하여 연구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정책기관이나 출판업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전문도서관만의 특화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구현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여 국내 유일의 교과서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활동이 요구된다. 현재 교과서정보관에서는 협약체결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 협약체결을 맺어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정보관 이외의 교과서 관련 정보원을 다루는 기관과 협력체결을 맺어 원문 열람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도서관협력 활성화 사업, 국제자료교환, 외국도서관과의 교류협약, 국제상호대차서비스 등을 시행해야 한다.

4.2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자원의 수집 및 목록작성 방안

교과서전문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사업 중 교과서 및 교과관련 정보자원의 수집 및 목록작성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자원의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집범위 및 수집 방안, 목록작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4.2.1 교과서정보자원의 구축 현황

교과서정보관은 교과서의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자, 교과서 국제비교 연구자, 교과용 도서의 기획·집필·편집·제작 담당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내·외 교과용도서 및 참고자료 등을 수집·보유하고 있다. 교과서정보관은 총 51,357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교과용도서는 48,369권이고 일반자료는 2,998권이다. 교과서정보관은 국내·외 교과용도서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현재 27개국의 교과용 도서를 수집하여 총 8,969권을 제공하고 있다. 2,988권의 일반자료 유형은 참고도서,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등이다. 또한 교과서정보관은 국내·외 교과서와 고(古)교과서, 교과서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전시를 하고 있으며, 교과서 및 관련 자료의 DB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2.2 정보자료의 수집범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내 교과서를 다양한 출판사에서 생산하므로 교과서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로 인해 출판사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과서를 한곳에 모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전문도서관이 교과서의 질적 향상 및 교과서 관련 연구자와 교사, 학생, 교사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원문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과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관련 자료, 교과서관련 연구자료 등 교과서와 교과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제공하여 원문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집해야 하는

정보자원의 범위를 교과용도서·연구자료·교구·교과서 삽화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서와 지도서(교육자료)로 구성되며 교과서전문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수집해야 하는 정보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전문도서관에서는 개화기부터 현재교육과정까지의 모든 교과용도서의 수집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집한 정보자료는 원문 DB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자료는 교과서의 질적향상 및 교과서관련 연구자들의 요구충족을 위해 수집되어야 하며, 교과서연구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교과서 및 교과과정에 관한 모든 연구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셋째, 교구는 제작자나 제작의도, 사용된 재료와 교육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지파일이나 동영상파일, 일반 문서 등의 적합한 형식을 선택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교구를 수집할 때에는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학교교사들이 만든 교구를 기증받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할 수도 있다.

넷째, 교과서에 삽입된 삽화를 표준화하여 유형별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며, 교과서의 저술자 등이 삽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연구도서관센터(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CRL)는 교과서를 포함하며 인문학, 과학, 사회과학 분야 등 다양한 주제분야의 자료를 연구자나 학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문서, 기록물, 그리고 다른 아날로그 문서와 디지털 문서 등을 수집하고 보존한다. 또 미국 초

등과정의 교과서, 비즈니스·무역학교와 같은 비학위 고등과정 후 학교교재, 외국어 문법교과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교과서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교과서의 판, 교사용 지침서, 보조자료, 교사업무용매뉴얼, 실험실매뉴얼 등의 자료를 수집, 소장하고 있다.

교과서정보관도 교과서 및 교과과정에 관한 자료를 부분 수집하는 기관의 소장정보와 목록을 통합하여, 교과서관련 다양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4.2.3 교과서전문도서관 목록작성 및 제공

교과서 및 지도서(교과용도서), 연구자료, 참고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할 경우 수집대상의 선정이 용이해지고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최영복 1998). 그러나 문헌적·교육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교육내용 연구의 대상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과서에 대한 체계적 조사나 목록작성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사 연구가, 교과교육연구가, 교과서 연구가들의 각각의 전공 분야에 따른 시대별 교육 내용 연구나, 교과별 교육내용 연구 등에서 단편적으로 해당 교과서에 대한 목록 작성이나 내용 분석 등의 연구가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고 교육과정별, 연도별, 교과목별로 검색이 되어야 하며, 교과서의 목록의 추가·삭제도 가능해야 한다.

4.3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화전략 및

특화콘텐츠의 구축 제안

4.3.1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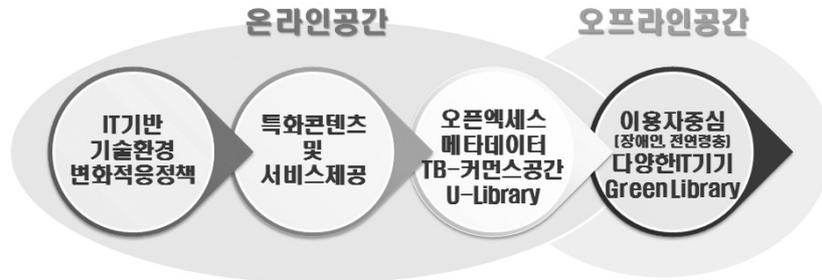
정보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이용자로부터 새로운 정보 요구를 창출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여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라는 특수한 주제에 부합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이를 위한 연구, 그리고 연구자와 교수·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양질의 정보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교과서전문도서관의 정보화 전략이 필요하다.

1) 교과서정보관의 전략 추진방향

교과서전문도서관은 교육·학습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에 있어 교과서를 주제로 특화된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의 구축은 우리나라 교육자료의 유산인 교과서의 보존과 분산·관리되고 있는 교과서 자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하였다. 당시에는 교과서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교과서 원문의 과금장치를 통한 열람 및 출력서비스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과금시스템 및 원문뷰어 서비스를 구현하여 제공함에 초점을 두었다(홍후조, 백경선 2007). 하지만, 앞으로 저작권보호에 있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교과서정보에 대한 디지털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점정책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첫째, IT기반 기술환경 변화적응정책 구축이 요구된다. 빅데이터의 시대가 오고 클라우드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도입·시행되면서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변하는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를 도서관에서 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과서는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



〈그림 1〉 교과서전문도서관의 온·오프라인 정책

육에 관심 있는 전 연령층의 이용자를 포함하므로, 어떠한 형태로 정보이용이 행해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먼저 정책화해야 한다. S/W적 기술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을 넘어서서 구글클래스와 같은 가상현실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기를 포함해 고도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는 H/W적 측면에서도 호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설문조사나 선행연구에서도 주장되었듯이 교과서전문도서관만의 특화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원문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교과서 특화 도서관이라는 기관만의 특색이 부여된 콘텐츠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교과와 교육을 주제로 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학습콘텐츠, 홈스쿨링이 가능한 콘텐츠, 연령에 상관없이 학습·이해가능한 콘텐츠의 제작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의 시행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는 U-라이브러리, 안방도서관(홈라이브러리)의 개념을 도입·적용하여 교과서전문도서관 또한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 제공되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포맷에 대해 교과서전문도서관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 콘텐츠 제작업체, 솔루션 제공업체 등과 협력·연계하여 표준화하며, 어느 기기에서나 이용가능하도록 호환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오픈엑세스, 메타데이터, TB-커먼스공간, u-라이브러리의 구축과 표준화가 요구된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과서전문도서관에서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저작자 또한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오픈엑세스, CCL 등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공간 등에서 생산된 정보가 정보이용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전문도서관에서 KORMARC이나 DC, KEM 등을 반영한 개별메타데이터나 목록방법을 개발하여 비슷한 주제를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 및 업체들에게 표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정보검색, 수집, 제작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보공유와 함께 정보의 자유를 누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이용 등 오픈된 공간으로서 서비스의 공유가 가능한 인포메이션 커먼스공간(IC)에 Textbook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포함시킨 TB-

커먼스(TextBook Commons)라는 새로운 온·오프라인공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간은 교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누구나 제작·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약 및 네트워크를 통해 교과서를 주제로 한 전시나 행사뿐만 아니라, 최신자료 및 주제별 연구자료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 관련 강의 개최 등 이용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넷째, 전 연령층이 이용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오프라인 공간이 요구된다. 일반 이용자가 연령,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디자인해야 하며 앞서 제시했던 IT기반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이용자행태에 맞추어 PC, 모바일로 접속가능한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기를 비치하여 교과서전문도서관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이용자에는 장애인과 같은 정보취약계층도 포함되므로 시각·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교과서전문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이는 온라인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추진 전략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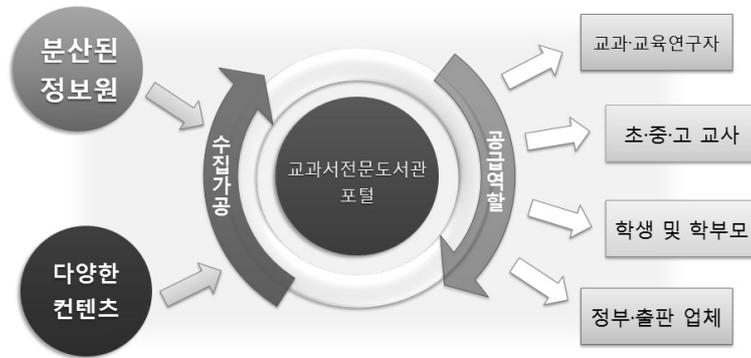
KERIS가 주관하여 제작한 디지털교과서는 인쇄형 교과서로 체험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포함하여 연구학교에 보급되고 있다(최진원 2011). 점차 전 범위로 확대되어가는 KERIS주관의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원문 그 자체의 디지털화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전문도서관은 '원문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시대별 교육을 조명하는 사료로서의 가치 보존'이라는 목적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로서의 원문 보존과 교과서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통합은 결국 앞으로 이용할 이용자와 현재 이용할 이용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역사적 가치로서 최대한 원문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디지털화, 특화된 국가도서관으로서 광범위한 교육·교과관련 DB 구축 및 제공, 특화콘텐츠 구축 및 제공, 교육·교과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국내외 기관과 커뮤니티의 연계 및 지원, 그리고 모든 이용자가 제작·공유가능한 교육콘텐츠 제작 솔루션의 구축 및 제공 등이다.

4.3.2 교과서전문도서관 특화콘텐츠

교과서전문도서관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검색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과 관련된 분산된 정보원과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가공하여 연구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정책기관이나 출판업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전문도서관만의 특화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구현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여 국내 유일의 교과서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도 1단계 설문조사연구와 사례조사,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바이다.

첫째, 이용이 편리한 교과서 원문제공서비스를 해야 한다. 교과서전문도서관에서는 최대한



〈그림 2〉 교과서전문도서관 포털 유통 모형

원문과 가깝게 디지털화하여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들이 특별한 뷰어나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정보취약계층이 교과서전문도서관을 이용할 때 용이하게 다가올 수 있다.

둘째, 공식적·비공식적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 커뮤니티의 통합,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학교도서관사서의 경우 각 분야별 커뮤니티의 활성도가 높으며 공유된 자료는 회색문헌처럼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교과별 커뮤니티가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생산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생산되어 이용이 검증된 양질의 정보를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 커뮤니티의 통합하여 자료의 제작·공유가 편리한 온·오프라인 공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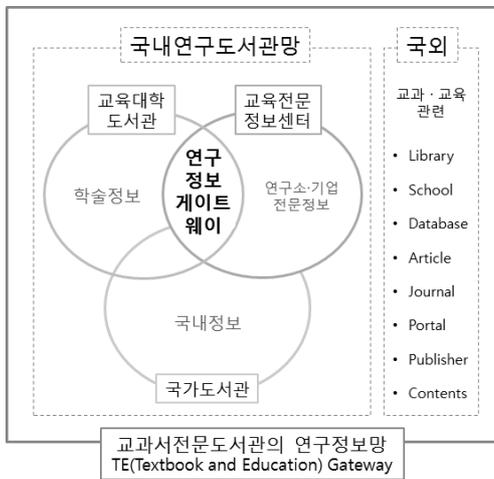
셋째, 교과관련도서 추천서비스가 요구된다. 교과관련도서 중 특히 문학의 경우 교과에 수록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관련도서는 전 과목에 걸쳐있고 부분적으로 인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도서를 수집하다보면 교과서전문도서관으로서의 본질이 희미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각 학교 및 교과별로 학교 추천도서, 독서퀴즈 대회 도서, 대학 추천 초·중·고 도서 등으로 구분하여 추천하거나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3.3 TE Gateway

국내외 사례분석 및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과과정 연구논문, 해외 교과서관련 학술자료, 교육용 통계 등의 전문정보제공을 위한 TE Gateway(Textbook and Education Gateway) 연구정보망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교과서와 관련된 법들에 대한 개정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교육연구를 참고하고 또 연구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순환적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과서전문도서관으로서 교과서라는 단편

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연구와 학술자료, 통계, 연구단체 및 기관 등에서 제작·유통·공유되고 있는 데이터와 회색문헌 성향의 자료들까지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3〉 교과서전문도서관 연구정보망 TE Gateway모형

이러한 학술·전문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연구자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일반인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커뮤니티 및 통계자료, 학술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유일의 교과·교육과정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첫째, 다양한 교과보조자료 제공서비스가 필요하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교과서 원문의 이용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내에서의 보조매체나 심화자료 및 보충자료 등도

요구할 수 있다. 보조매체, 교과내용의 멀티미디어 자료, 학습지 등의 제공은 교수학습커뮤니티서비스의 지원이나 홈스쿨링 콘텐츠, 솔루션 제공서비스 등의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교과과정별 전문화된 교수학습커뮤니티서비스를 해야 한다.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만 활발하게 운영되는 커뮤니티를 비롯한 다양한 교수학습커뮤니티의 통합은 교과서전문도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과서전문도서관의 온·오프라인 활성화와 제공 콘텐츠 및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교과관련 모든 정보의 통합검색서비스를 해야 한다. 교과과정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데이터에는 물리적매체 중 문헌뿐만 아니라 분야별 저널, 교육용 동영상 및 플래시·이미지·사운드 등의 멀티미디어 매체, 해외의 통계자료 및 국외 저널, 국외 출판사 및 교육기관에서 생성한 다양한 교육자료 등이 포함된다. 교과과정 및 교육분야는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전문도서관에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기보다는, 타 도서관의 자료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홈스쿨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작된 교과관련자료의 구축·제공서비스가 필요하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은 교과서가 지닌 '교육'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이 지닌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홈스쿨링이 가능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수준까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수가 적긴 하지만, 홈스쿨링이 존재한다. 또한 검정고시 대상으로 학교 중퇴자나, 노인, 장애인학생, 주부 등도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잠재적인 이용층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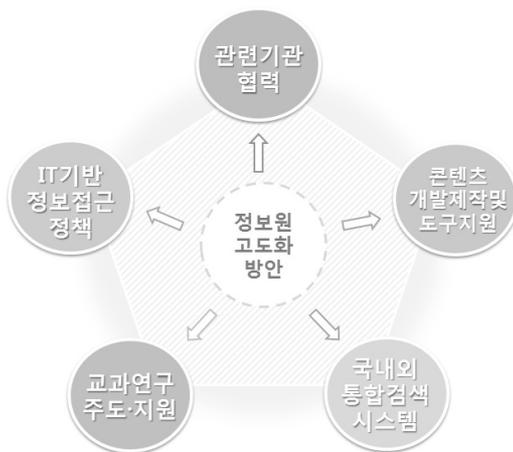
다섯째,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화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구축한 콘텐츠 전문가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학술·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매체가 광범위한 이용자의 요구 및 수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각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수준이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며, 제작된 콘텐츠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솔루션 및 공간의 제안은 제2차도서관발전계획에서도 2013년부터 '무한상상실' 등으로 시범조성 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을 바탕으로 창작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솔루션 제공을 위해 '무한상

상장터(가칭)'앱을 개발·보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한상상실'은 이용자가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교육목적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교과서전문도서관의 추구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무한상상실'의 맥락과 비슷하게 제작·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googleDoc, MSoffice, 아래한글 등을 이용해 웹문서의 작성이 바로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동영상 제작, 플래시파일 제작, 간단한 포토샵의 기능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멀티미디어매체의 제작이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하고 오프라인공간에서는 이러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집약적인 공간으로서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교과서전문도서관에서의 교과서 및 교과서 관련 정보원의 효율성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국내 교과서 관련 정보제공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국외 교과 관련 정보제공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교과서 관련 출판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교과서 및 교과서 관련 원문DB 구축
- 교과서 및 교과서관련 수록 매체의 다양성 확보
- 학생·학부모·교사 등 이용자 수준별 교과 보조자료 제작·제공
- 로봇활용교육, 민속문화교육 등 특화콘텐츠 구축제공
- 콘텐츠 공동 구축 및 공유 공간 제공
- 교과와 교육에 관련된 현황 및 통계자료의 DB화
-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등의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 및 접근가능한 방법 개발

〈그림 4〉 특화콘텐츠 기반 교과서전문도서관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교과서전문도서관은 교육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기능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교과서를 수집 및 보존하는 전문도서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전문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운영인력, 시설, 예산 등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전문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리기능의 통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정책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전문도서관의 분산되어 있는 관리기능의 통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 문헌 및 사례연구, 조사자료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그리고 자문위원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교과서전문도서관 구축 및 운영의 중장기 정책방향은 크게 교과서전문도서관 조직 및 운영,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자원의 수집 및 목록작성 방안, 그리고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화전략 및 특화콘텐츠의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5.1.1 교과서전문도서관 조직 및 운영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서전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교과서전문도서관 업무조직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전문도서관 업무조직을 확대하여 자료관리부, 참고서비스부, 기획연수부, 교과서 박물관, 교과서연구소를 하위부서로 두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전문도서관만의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원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정보관은 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일반 정보봉사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되 교과서분야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정보봉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 및 교과 관련 정보원 통합센터 구축, 교과서 DB화, 특화콘텐츠 구축, 협력활동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5.1.2 교과서 정보자원 수집범위 및 수집방안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자원의 현황을 바탕으로 수집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집범위 및 수집 방안, 목록작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자료의 수집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집해야 하는 정보자원의 범위는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교과용도서, 연구자료, 교구, 교과서 삽화 등으로 나누어 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수집 방안에 대한 것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교과서나 민간이 소지한 교과서들을 모두 수집할 수 있는 교과서 수집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과서도서관 정보자원의 수집은 구입에 의한 수집,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기증·교환에 의한 수집방법이 있다.

셋째, 교과서 및 지도서(교과용도서), 연구자료, 참고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면 수서대상의 선정이 용이해지고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5.1.3 교과서전문도서관 정보화전략 및 특화콘텐츠의 구축

교과서전문도서관은 교육·학습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를 주제로 특화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서전문도서관은 우리나라 교육자료의 유산인 교과서에 대한 보존과 분산·관리되고 있는 교과서 자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정보화전략 및 특화콘텐츠 구축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전문도서관은 원문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시대별 교육을 조명하는 사료서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목적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로서의 원문 보존과 교과서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통합은 결국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역사적 가치로서 최대한 원문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디지털화, 특화된 전문도서관으로서 광범위한 교육·교과관련 DB의 구축 및 제공, 교과서전문도서관으로서 특화된 콘텐츠 구축 및 제공, 교육·교과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국내외 기관과 커뮤니티의 연계 및 지원, 모든 이용자가 제작·공유가능한 교육콘텐츠 제작 솔루션의 구축 및 제공 등이다.

둘째, 교과서전문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구현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여 국내 유일의 교과서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용이 편리한 교과서 원문 제공서비스, 공식적·비공식적 교육 커뮤니티의 통합 및 적

극적인 지원, 학교별 추천도서, 독서퀴즈대회 도서, 대학 추천 초·중·고 권장도서, 교과과정 연구논문, 해외 교과서 관련 학술자료, 교육용 통계 등 전문정보제공을 위한 TE Gateway (Textbook and Education Gateway) 연구정보망 구축 등이 요구된다.

5.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사례조사, 연구자료 조사 등을 통해 교과서전문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과서전문도서관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을 제안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과서전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도서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이 체계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교과서전문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의 특성화와 발전방향을 잡아주는 가장 기반이 되는 정책이므로 반드시 연구를 통해 개발 및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성화콘텐츠의 지속적인 구축 및 주제별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우리나라에는 특성화된 교과서 관련 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 이외의 수많은 특성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축함으로써 교과서전문도서관이 교과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주제별가이드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협력망 및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전국의 교과서 콘텐츠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력망 확대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협력망 확대 구축, 교과서정보 확대 구축, 다양한 교과서 관련 콘텐츠 확보, 국내외 교과서 관련 콘텐츠 구축, 수집된 콘텐츠 재가공을 통한 이용자서비스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교과서전문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과서전문도서관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연구로 교과서전문도서관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교과서전문도서관은 공간,

인력, 자원 부분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또한 교과서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확장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과서전문도서관만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과서박물관 구축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과서정보관은 후세에 교과서정보를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 전문가들이 수시로 교과서 관련 역사를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박물관을 온오프라인 형태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교과서정보관 [online]. [cited 2014.9.18]. <<http://library.textbook.ac/index.ax>>.

교육과학기술부. 2008.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체계 구축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09.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위한 미래형교과서 정책 토론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교과서도서관 [online]. [cited 2014.9.18].
<<https://intl.ikorea.ac.kr:40666/korean/viewforum.php?f=112&sid=61aa5e517bd5373667f420f3afc0690a>>.

금창연, 부길만, 채성혜. 2007. 『교과용도서 발행 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 2007-2.

김덕근, 윤현진, 김명정, 서보국, 손형섭, 장일, 이소연. 2012.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T 2012-5.

김만곤. 2006. 『검정도서 수정·보완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6-4.

김만곤. 2009. 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망. 『교과서연구』, 57: 4-9.

김병규. 2009. 우리나라의 인정 도서 개발 현황. 『교과서연구』, 57: 26-35.

- 김상재. 2009. 교과서 대여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교과서연구』, 57: 59-62.
- 김송득. 1996. 교과서 법률제도의 구조와 논리. 『교육법학연구』, 8: 121-144.
- 김유환. 2005. 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제도의 법적 문제. 『교육법학연구』, 8(1): 1-23.
- 김재춘. 2009. 『교과서 검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09-5.
- 김재춘. 2012. 『교과서 대여제 도입가능성 분석』.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김정호. 2009. 교과서 인정 제도의 발전 과제. 『교과서연구』, 57: 19-25.
- 노영희, 최원태, 윤다영. 2014. 교과서전문도서관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이용자 요구분석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1(4): 69-102.
- 문홍근. 2010. 인정도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 『교과서연구』, 60: 17-21.
- 박도순, 전효선, 김명화, 홍후조. 2001.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박창언. 2003. 국정 교과서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1(3): 343-362.
- 박창언. 2004. 교육 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와 과제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16(2): 77-97.
- 서울시교육청. 2007a. 『교사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교과서 기대효과 연구』. 서울: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2007b.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2007c.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학습자 측면의 효과성 연구』. 서울: 서울시교육청.
- 심재호. 2010. 『교과서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유대균. 2012. 인정도서 정책의 배경과 방향. 『교과서연구』, 67: 8-12.
- 유학영, 송규각, 윤광원. 2009. 『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주요국의 교과용 도서 제도 경향과 교과용도서 수급자의 요구 분석을 토대로』.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9-1.
- 윤광원. 2009. 인정 도서 업무의 절차와 요령. 『교과서연구』, 57: 36-45.
- 이병욱, 강연홍, 조혜숙, 홍주환. 2009. 『전문교과 인정도서 개발 방식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9-3.
- 이승구. 2006.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에 관한 논의. 『교과서연구』, 48: 52-59.
- 이화성. 2009.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따른 해결과제. 『교과서연구』, 57: 10-18.
- 조난심, 진재관, 방인자. 2010. 『교과용도서 정책 현안 검토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10-3.
- 조난심, 홍후조, 송현정, 김지현. 2004. 『초·중등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I 2004-3.
- 최영복. 1998. 『한국 교과서 목록 작성 및 그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 최진원. 2011.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4(1): 211-241.
- 홍후조, 백경선. 2007.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교과서 가격 및 검정 도서 책별 이익금 배분제와 발행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황준성. 2006. 한국의 교과서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법학연구』, 18(1): 205-235.
-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online]. [cited 2014.9.18]. <<http://www.crl.edu>>.
- Japan TextBook Research Center Library [online]. [cited 2014.9.18]. <http://www.textbook-rc.or.jp/eng/indexe_library.html>.
- KERIS. 2007a. 『디지털교과서 현장적용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방안 연구』. 서울: KERIS.
- KERIS. 2007b. 『장애우용 전자교과서 개발 방향 연구』. 서울: KERIS. 연구보고 CR 2007-20.
- KERIS. 2008.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 서울: KERIS. 연구보고 CR 2008-13.
- KERIS. 2009.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생과 교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서울: KERIS. 연구보고 CR 2009-14.
- Open textbook library [online]. [cited 2014.9.18]. <<http://http://open.umn.edu/opentextbooks>>.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 Nansim, Hoojo Hong, Hyunjung Song, and Jihyun Kim. 2004. *Studies on Changing Syste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xtbooks from Government-issued to Government-authorizing or Adoption System*.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CRI 2004-3. Research report 2004-3.
- Cho, Nansim, Jaekwan Jin, and Inja Bang. 2010. *A Study on Strategi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xtbook Policy Issues*. Seoul: Korea Textbook Resarch Foundation. Research report 2010-3.
- Choe, Jin-Won. 2011. "Legal issue on the use of a digital textbook -Focusing on copyright act."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14(1): 211-241.
- Choe, Yeong Bok. 1998. *A Study on Making a list of all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since 1945 and studying how to collect theses textbooks*. Seoul: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 Foreign Textbook Library [online]. [cited 2014.9.18]. <<https://intl.ikorea.ac.kr:40666/korean/viewforum.php?f=112&sid=61aa5e517bd537366>>

7f420f3afc0690a\).

- Geum, Changyeon, Gilman Boo, and Seonghye Chae. 2007.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Publishing System in the Textbook*. Seoul: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report 2007-2.
- Hong, Hoo-Jo and Kyeong-Sun Baek. 2007. *A Study on Improvement of Textbook Publishing Law: Textbook Prices and a Distribution System of Profit-sharing by Black Book, and Textbook Publication System*. Seoul: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 Hwang, Junsung. 2006. "An Analyses of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he Curriculum Books."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18(1): 205-235.
- Kim, Byungkyu. 2009. "Development status of the approved books in Korea." *Textbook Research*, 57: 26-35.
- Kim, Deog-Keun, Hyunjin Yoon, Myungjung Kim, Boguk Seo, Hyungsub Son, Il Jang, and Soyeon Lee. 2012. *Comparative Study of Law on the Curriculum Books on An International Level*.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RRT 2012-5.
- Kim, Jaechun. 2009. *A study on improvement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RRO 2009-5.
- Kim, Jaechun. 2012. *Feasibility analysis for introducing the textbook rental system*. Seoul: Korea Textbook Resarch Foundation.
- Kim, Jungho. 2009. "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Textbook Research*, 57: 19-25.
- Kim, Mangon. 200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asures on the Government- authorized Textbook Revision and Modification System*. Seoul: Korea Textbook Resarch Foundation. Research report 2006-4.
- Kim, Mangon. 2009. "Changes in the textbook system and views on the impact of the textbook system." *Textbook Research*, 57: 4-9.
- Kim, Sangjae. 2009. "Problems and solution of the Textbook rental system." *Textbook Research*, 57: 59-62.
- Kim, Songdeuk. 1996. "The structure and logic of textbooks legal system."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8: 121-144.
- Kim, Yoo Hwan. 2005. "The Legal Problems of State Textbooks and Approval/Certification System of Textbook."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8(1): 1-23.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7a. *A study on research school management plan for field application of Digital textbook*. Seoul: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 Information Service.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7b.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 of Digitaltextbook for the disabled*. Seoul: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 2007-20.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8. *A study on effectiveness measurement of Digitaltextbook*. Seoul: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 2008-13.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9. *A study on analysis effect of utilization of Digital Textbook on the student's and teacher's health*. Seoul: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 2009-14.
- Lee, Byungwook, Yeonheung Kang, Hyesook Cho, and Juhwan Hong.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xtbook adoption system for the specialized subject*. Seoul: Korea Textbook Resarch Foundation. Research report 2009-3.
- Lee, Hwasung. 2009. "Challenges and 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books expansionist policy." *Textbook Research*, 57: 10-18.
- Lee, Seunggu. 2006.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supervision of textbook notation and expression." *Textbook Research*, 48: 52-59.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8. *A study on a system construction of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9. *The future textbook policy forum for various and high quality textbook*.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Moon, Honggeun. 2010. "Challenges for improvement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problems." *Textbook Research*, 60: 17-21.
- Noh, Younghee, Won-Tae Choi, and Dayoung Yun. 2014. "A Study on Users' Need Analysis for Building Textbook Special Libraries Portal Si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69-102.
- Park, Chang Eon. 2003.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Educational Freedom for School Teachers = A Critical Discourse on the Logicity of the Government-published Textbook Syste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1(3): 343-362.
- Park, Chang Eon. 2004. "An attempt to improve the legal problems on the content of education."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16(2): 77-97.
- Park, Dosoon, Hyosun Jeon, Myunghwa Kim, and Hoojo Hong. 2001. *A Comparative Study of Textbook Approval and Adoption Policies*. Seoul: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07a. *A study on expectation effectiveness of digital*

- textbook from teacher's viewpoint*.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07b. *A study on standardization Digital Textbook*.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07c. *A study on learner aspect from utilization of DigitalTextbook*.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Sim, Jaeho. 2010. *How to implement creativity and diversity of a textbook*.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Textbook Information Center [online]. [cited 2014.9.18]. <<http://library.textbook.ac/index.ax>>.
- Yoo, Daekyun. 2012. "Background and direction of the approved books policy." *Textbook Research*, 67: 8-12.
- Yoo, Hakyong, Kyugak Song, and Kwangwon Yoon.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grams for Textbook Approval and Adoption*. Seoul: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report 2009-1.
- Yoon, Kwangwon. 2009. "Business procedures and tips for the approved books." *Textbook Research*, 57: 36-45.

